

강진군, '챗GPT 4.0' 활용 2차 시연회 개최



강진군이 4월 4일, 챗GPT 2차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당일 밝혔다.

지난 2월 14일, 광주·전남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강진군에서 첫 챗GPT3.5 버전으로 최초의 시연회가 열린 데 이어, 2차 시연회는 3월 14일 출시된 챗GPT 4.0 버전을 활용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술과 적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군 정례회 직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시연회에서는 ▲챗GPT 4.0의 소개와 적용 프로그램 라이브 시연 ▲프롬프트 지니 소

개 및 활용 방법 안내 ▲챗GPT 4.0이 탑재된 카카오톡 채널 아숙업(Askup)의 라이브 시연 ▲인공지능(AD)이미지 생성기인 미드저니(Midjourney)의 시연 등을 선보였다.

강진군청 4차산업혁명지원팀 담당자가 아숙업을 통해,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 공고문을 이미지 형태로 주고 보도자료를 요청하자, 10초 만에 보도자료가 똑딱 작성되는가 하면, 미드저니를 활용해, 해벨을 이용한 수제 맥주의 디자인을 보여달라고 텍스트로 요청하자, 역시 10초 만에 멋진 디자인 시안을 내놓았다.

공고문 한 장 10초만에 보도자료 작성...하멜 맥주 디자인 순식간 챗GPT 부서별 유료결제 지원...동아리 지원 등 군정 접목 성큼

MS오피스에서 빙을 사용해, 불금불과 축제에 대해 묻자,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문의 답변을 보여줬으며, 강진군 청사에 대한 미래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미드저니는 이색적인 청사 전경을 구현해냈다. 이미지의 저작권은 유료 결제시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군은 각 실과 소 별로 챗GPT의 월 사용료 20달러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챗GPT의 할루시네이션(오답을 정답처럼 말하는 것) 현상도 있어, 사용자의 철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이와 함께 챗GPT가 갖고 있는 정보의 부정확성 및 실시간 정보 인식의 어려움, 높은 운영비 등 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시연회의 정보를 OR코드로 제공해 참석자들이 사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공직자 가운데 희망자를 모집해, 챗GPT 활용 동아리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혀, 공직자들의 다양한 업무에 챗GPT가 적극 활용

될 경우, 시간 절감과 함께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원 군수는 "지금은 인간과 인공 지능의 대화가 혁신에 혁신을 또 거듭하는 과도기로, 챗GPT의 출현은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그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하고 먼저 과감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4차산업혁명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문 인기제를 채용하는 등, 작은 도시의 괄목한 발전을 위한 지렛대로 4차산업혁명을 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 15일에는 강진원 군수가 판교 테크노벨리에 입지한 게임 개발사를 방문해, 강진의 관광, 문화, 예술,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총괄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4차산업혁명의 활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해남군, 수도권 향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해남군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향우에게 연 50만원 상당(개인부담 50%)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향우들에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 1순위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거주 향우이며, 2순위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이다. 단, 전남 및 광주광역시 거주자는 제외된다. 1순위 대상자 미달시, 2순위에서 모집 선정이 가능하다. 총 150명을 선정한다.

최종 대상으로 확정되면 남도장터 홈페이지에서 자부담 25만원을 낸 후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받아 12월 15일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택배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출신지 읍·면사무소에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대상자 선정 과정 중 향우 임증을 위해 읍면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 및 기본증명서 열람 동의가 필요하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군, 교육부 주관·주최 '성인문해교육 사업' 선정

완도군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주최하는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사업 선정으로 전남에서 완도군(8천6백만 원)이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지난 3월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 기기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문해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군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읽기, 쓰기, 셈하기 교육은 물론 디지털 문해·생활 문해·체험 활동·문해 작품 제작 등을 추진하고 문해 교과서, 워크북, 디지털 학습 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초 신우철 군수는 "2020년 인구조사 통계 결과 전국의 문해 교육 잠재 수요자 평균 9.83% 대비 우리 군은 29.77%로 높은 편이다"면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교육 격차 해소 및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히며 문해교육 예산 증액 및 계획을 수립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군은 완도군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신규 문해 교사 양성, 디지털 문해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및 수업 컨설팅, 디지털 학습 기기 지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확대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 용산면, '남상천 아름다운 벚꽃길 만들기' 지역민 자발적 참여 통한 남상천 빛나무길 쓰레기 수거

장흥군은 지난 3일 용산면에서 '남상천 벚꽃길 주변 환경정화'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용산면 월산재 앞을 기점으로 남상천 주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용산면 변영회를 주축으로 새마을협의회, 자율방범대, 청년회, 농민회 등 지역 사회단체 회원 100여명이 남상천 주변 정화활동에 참여했다.

참여 회원들은 이날 3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용산면 남상천 벚꽃길은 장전마을 앞에서

시작하여 원동마을에 이르는 5Km에 달하는 구간으로 봄이 되면 벚꽃터널이 남상천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환경정화를 추진하는 중에도 인근 지역의 어린이집 원생들이 만개한 벚꽃을 만끽하며 산책에 나섰다.

김정렬 용산면 변영회장은 "깨끗한 용산, 정의 넘치는 용산면이 될 수 있도록 변영회를 비롯한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소문내기' SNS 이벤트 실시 ...오는 16일까지

모바일 커피 쿠폰 100명 추첨...4월 20일부터 축제 개최



인증 캡처와 공유 URL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참여자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화) 진도군 공식 SNS에서 실시하며, 경품은 개별 발송한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오는 4월 20일(목)부터 22일(토)까지 3일 동안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소망의 땅, 기적의 바다로!' 라는 주제로 ▲바닷길 만남 한마당 ▲소망의 조약돌 바닷길 체험 ▲EDM 올나잇 스탠드쇼 등 총 70여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진도군 기획홍보실 관계자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바닷길 체험과 찬란한 진도 민속 문화가 함께 어우러 지는 관광문화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진도군이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SNS 소문내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SNS 소문내기 이벤트는 4월 20일부터 진도군에서 개최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이벤트 게시글을 개인 SNS에 공유하면 된다.

이벤트는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며, 진도군 공식 SNS를 구독·캡처하고 네이버폼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